

## 회의문자①



卿

벼슬 경

卿자는 '벼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卿자는 이전에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말이기도 했다. 卿자의 갑골문을 보면 가운데 식기를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𠂔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卿자는 왕의 음식을 준비하며 시종들던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음식을 준비하다'였다. 하지만 후에 이들이 왕을 가까이서 모신다 하여 '관직'이나 '벼슬'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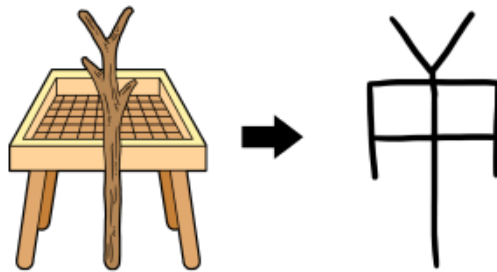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상형문자①



庚

별 경

庚자는 '천간(天干)'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천간이란 고대 중국의 전통 역학 원리 중 하나로 십이지(十二支)의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과 같은 십간(十干)을 말한다. 庚자는 그중 일곱 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일곱째 천간'이라 한다. 庚자는 본래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는 탈곡기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庚자를 보면 탈곡기와 막대기가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庚자에 쓰인 广(집 엄)자는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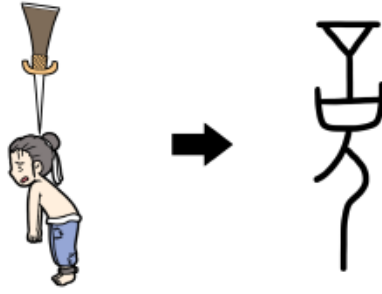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3  
-  
13

회의문자 ①



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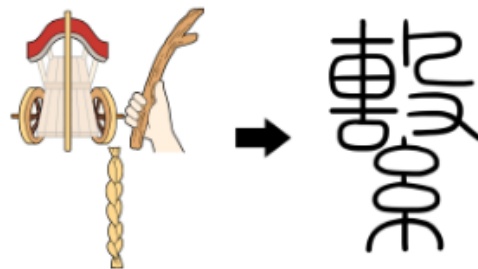
마침내  
경:

竟자는 '다하다'나 '끝났다', '마침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竟자는 立(설 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서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竟자의 갑골문을 보면 兄(형 형)자 위로 幸(매울 신)자가 ㄱ<sub>ㅅ</sub>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兄자는 입을 벌려 죽문을 읽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응용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겨 표식을 했다. 竟자는 바로 그러한 작업이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마침내'나 '다하다'를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일을 '끝났다'라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14



회의문자 ①



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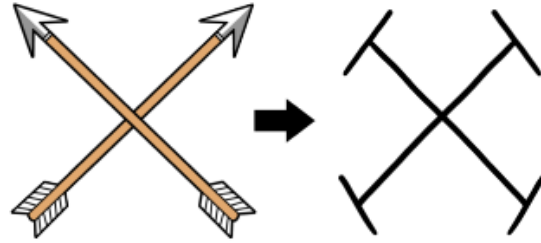
맬 계:

繫자는 '매다'나 '이어 매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繫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𣪠(매어기를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𣪠자는 소나 돼지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매어 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繫자는 이렇게 '매어 기르다'라는 뜻을 가진 𣪠자에 系자를 결합한 것으로 끈으로 묶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매다'나 '묶다'를 뜻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

3  
-  
15

회의문자①



癸

북방/천  
간 계:

癸자는 '북방'이나 '천간(天干)',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癸자는 𠂔(등질 발)자와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癸자를 보면 단순히 X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화살을 서로 엇갈려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서는 癸자가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화살의 길이로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뜻이었다. 해서에서는 여기에 𠂔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걸음걸이로 길이를 측량한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의 癸자는 이러한 유래와는 관계없이 천간(天干)의 10번째를 뜻하거나 '겨울', '북방'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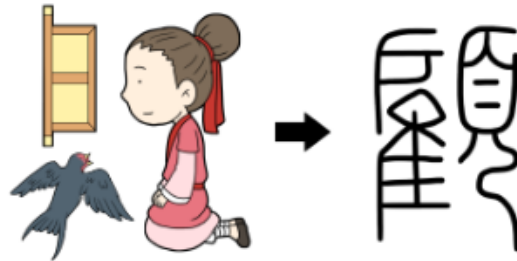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16

회의문자①



顧

돌아볼  
고

顧자는 '(지난날을)돌아보다'나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顧자는 雇(품 팔 고)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雇자는 戶(지게 호)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것으로 '품을 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雇자는 문지방 위로 제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제비는 봄에 찾아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비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 농사일이 시작됐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렇게 제비가 다시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雇자에 頁자가 더해진 顧자는 제비가 다시 방문하듯이 사람이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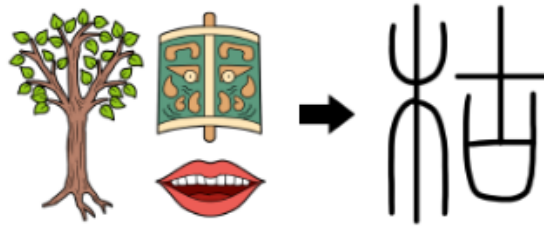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17

회의문자 ①



枯

마를 고

枯자는 '마르다'나 '시들다',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枯자는 木(나무 목)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옛날'이나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枯자에서 말하는 '마르다'나 '약해지다'라는 것은 병에 걸려 고사상태에 놓인 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枯자에 쓰인 古자는 나무가 오래되어 마르거나 약해졌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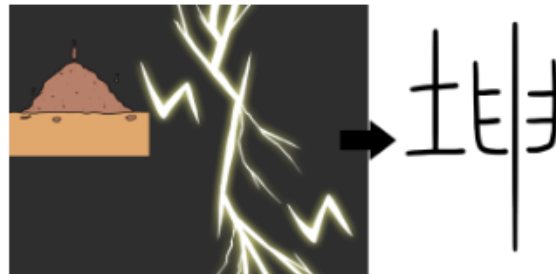
소전

枯

해서

3  
-  
18

회의문자 ①



坤

따 곤

坤자는 '땅'이나 '괘(卦)'를 뜻하는 글자이다. 坤자는 土(흙 토)자와 申(펼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申자는 번개가 내려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퍼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申자는 본래 '하늘의 신'을 뜻했었다. 坤자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뜻하는 申자에 土자를 결합한 것으로 '만물의 힘이 깃든 땅'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주역(周易)이나 신성함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다.

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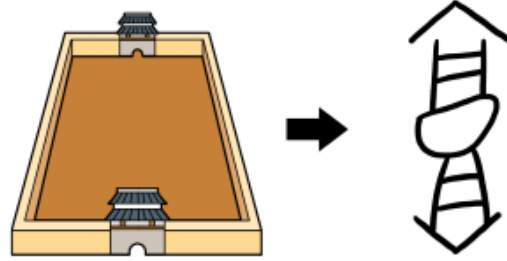
소전

坤

해서

3  
-  
19

상형문자①



郭

둘레/외  
성 괄

郭자는 '둘레'나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郭자는 享(누릴 향)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享자는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는 사당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郭자를 보면 단순히 성벽과 출입구만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의 성곽은 동서남북이나 남북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성벽과 출입구를 그려 성의 외곽을 뜻했었다. 이후 소전에서는 邑자가 추가되었고 해서에서는 성곽을 享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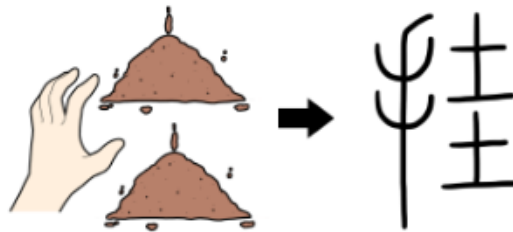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20

회의문자①



掛

걸[懸]  
괘

掛자는 '걸다'나 '매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掛자는 卦(걸 괘)자와 手(손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卦자는 흙과 점괘를 함께 그린 것으로 '점괘'나 '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걸다'라는 뜻을 가진 卦자에 手자가 더해진 掛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건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掛자가 '나누다'나 '구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挂(걸 괘)자가 '걸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掛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설문해자의 해석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는 편이 좋다.



소전



해서